

## [ 종합·해설 ]

# 與 “국회 폭력방지 필리버스터 도입” 野 “MB 악법 강행 선전 포고하나”

## ■ 전문 짚어가는 2월 국회… 주도권 다툼 본격화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되면서 ‘입법 전쟁’을 대비하는 여야의 시각차가 한연히 드러나는 등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국회 내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이를 ‘대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또 이날 충북 지역에서 5번째 ‘용산 참사 규탄 및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대국민 여론전을 계속했다.

◇한나라당=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 국회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의원을 영구히 추방하겠다”면서 “야당이 원활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정부·여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해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서 “불법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고 도시 게릴라처럼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 시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홍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MB 악법’ 처리를 위한 대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홍 원내대표는 용산참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MB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통합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흥 원내대표가 노사정 사회대타협 제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여론조차 수렴되지 않은 MB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대타협을 제안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생점법안의 강행처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편으로 대타협을

제안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또 필리버스터 도입 제안에 대해 훈령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국회 폭력방지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미끼를 던진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용산 국회’라는 표현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도외시하고 용산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경제살리기 국회’ 또는 ‘서민·중산층 민생 국회’라는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등 2월 임시 국회 전략 궤도 수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필리버스터(filibuster)=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주로 ▲장시간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설명을 위한 장시간 발언 ▲신상발언의 남발 등이 이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 친李-친朴 정면 충돌 예고

## 공성진의원 “방관자가 차기 생각하면 잘못”

## 김무성의원 “우리는 비주류…잘못된 일 지적”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우리나라 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회합의 계기를 못 만든 가운데 3일 친박계와 친이계 대표격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이후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친이계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서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상대 진영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친이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3월 극우, 박희태 대표의 4월 재보선 출마 등 여권 내 세력판도 변동 가능성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주류 쪽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우리(친박)는 비주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통령 임기 1년 동안은 조용하게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일체의 소리

를 내지 않고 협조를 해왔다”며 “그런데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에서 왜 비협조적이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잘못되었다”고 친이계를 겨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2월 국회가 끝나면 건전한 비주류로서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친박계가 ‘여당 속 야당’을 선언한 것으로 3월부터는 친이계와의 정면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재오계인 공성진 의원은 반역이라도 하듯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 겨눴다.

공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차기대선주자 자격과 관련, “MB정부의 성공이 바로 다음 정권의 창출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한 뒤, “이 정권을 위해서, 이 정권의 성공을 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냉소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이 정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반대만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순간적인 인식에 연연해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잘못되었다”고 분다”며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뒤, “이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것과 관련, “얼음이 녹아가는 해빙기”라고 평가하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빙기가 올 때 얼음이 한 번에 녹는 게 아니다”라며 “녹는 과정에 살얼음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얼음이 남아있다고 보지 말고 녹아가고 있다고 봐라”고 거듭 당부하며 ‘녹아가고 있는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120% 그렇다.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정현 의원의 ‘식지 않는 고향 사랑’

### 임시국회 폐회때도 광주·전남 방문 현안 쟁여



일 국내 유수 여행사 대표와 관련 학과 대학교 수와 함께 여수·순천·곡성·구례·신안·해남

등을 둘러보며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 각 군의 관광정책과 장으로부터 관광개발 추진 계획과 예산 신청 내역을 점검, 문광부에 이를 전달했다.

그는 또 일부 조선·건설사의 워크아웃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상황과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 사항을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직접 들은 데 이어 현지에 보좌관

을 보내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 관계자와 아파트 청약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광주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들은 뒤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접견해야 한다는 점과 해외 상사원을 두고 있는 대기업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문광부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호남 둑 비례대표로 당선된 만큼 광주·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생각하고 틈만 나면 지역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사 市 위원회 통폐합

## 진선기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시의회 진선기(북구1선구) 의원이 3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광주시가 2007년 8월 9개년 위원회를 2008년 말 123개로 크게 늘렸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지난해 말 3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북구을 시의원들 떨고 있다

### 내년 선거부터 3명서 2명으로 줄어

광주시의회 전우근·조호권·이철원 의원이 떨고 있다. 이를 지역구인 북구을의 시의원 정수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 재등원을 위해서는 각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1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19명. 이 중 지역구 의원은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각각 2명씩 선출된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을(임동, 용봉, 오지1·2, 운암1·2·3, 동림, 삼각, 일곡, 매곡, 건국동)의 경우 의원 정수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각각 2명씩 선출되어 최소 16명은 제우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선거구는 7곳이었지만 인구 비율에 따라 광주·광산구와 북구을에 각각 1명씩 더 배분, 총 16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광산구는 광산갑과 광산을 분리되면서 광주지역 선거구는 8곳으로 늘어나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선거구별 각각 2명씩 뽑아 16명의 정수를 총족해야 한다. 결국 광주 북구을은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반면 광산구는 광산갑과 광산을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하게 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게 된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